

광영·의암지구 택지 매각

- 매각대상: 광영·의암지구 체비지 150필지
- 공동주택용지 2, 연립주택용지 3
- 단독주택용지 114, 준주거용지 18
- 산업시설용지 3, 지원시설용지 13
- 매각방법: 수의계약 (계약금 우선 납부순)
- 문의: 광양시 택지조성과 (061-797-3186)

선사인 광양

2017. 봄 호 VOL.256



소통하다, 즐기다, 함께하다



• 섬진강변 매화마을에 매화꽃비가 내린다.

배추흰나비 이야기



1. 참 작은 친구

-알-

0월 0일 0요일

날씨 : 아침부터 하늘 가득 호기심 물려다니던 날

선생님께서 배추흰나비 알이 붙어 있는
배추 한 포기를 사오셨다

아이들이 우~~~ 물려들었다
“어디 있지? 잘 안 보이는 걸?”

“조심하구...
돋보기로 관찰해 보렴.”

우리 교실에 참 작은 친구가 왔다
매일 매일 눈 마주쳐야 하는

2. 참 잘 먹는다

- 애벌레 -

0월 0일 0요일

날씨 : 급식 시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한 날

애벌레는 아삭아삭
참 잘 먹는다

국어 시간에도 먹는다
체육 시간에도 먹는다
사회 시간에도 먹는다

저렇게 먹어도
똥똥보가 없다

3. 참 잘 잔다

- 번데기 -

0월 0일 0요일

날씨 : 졸음 때문에 5교시 눈꺼풀이 천근같던 날

번데기는 꿈쩍 않고
참 잘 잔다

수학 시간에도 잔다
음악 시간에도 잔다
과학 시간에도 잔다

저렇게 잠만 자도
꾸중 들은 일 없다

4. 참 잘 난다

- 배추흰나비 -

0월 0일 0요일

날씨 : 높이 날아간 비닐봉지를 멍하니 쳐다보던 날

“나비가 태어났다야!”
“어디? 어디?”

“이제 나비를 날려줘야겠구나.
모두 희망 한 가지씩 말해 보렴.”

“나는 파티시예가 되고 싶어!”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선생님께서 창문을 열고
나비를 날려주었다

희망이 날아오른다
참 잘 날아간다



박행신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동시문학회 이사, 광양문인협회 회원

*광주일보 눈높이동시문학상 수상

*한국예총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전남문화상 문학부문 수상

*어르신 자서전 쓰기 강사(광양시립중앙도서관)

*동시집 : 박행신동시선집 외 3권(한국동시100년사의 빛나는 동시인으로 선정)

시정소식지 『선사인광양』 2017년 봄호 (통권 256호)

발행처 광양시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광양시장 기획·편집 홍보소통담당관실 홍보팀
주 소 545-701 전남 광양시 시청로33 (중동)
광양시청 홍보소통담당관실
전 화 061-797-2713

* 본지에 수록된 일부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독자의 글을 받습니다

- 이번호에서 좋았거나 재미있게 읽은 기사
혹은 아쉬웠거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알려주세요.
- 기고글을 받습니다. 광양에서 있었던 일,
어릴 적 추억 등 자유주제로 보내주세요.
- 선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정기 구독(무료) 및 주소변경안내

- 정기 구독 및 주소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Tel : 061-797-2713
Fax : 061-797-2577
E-mail : kgy6065@korea.kr
* Fax 또는 메일로 보내실 경우 성함,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매화꽃 꽃 이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댓잎이 사운대는
섬진강가에 서럽게 서 보셨는지요

해 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 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저서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사랑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는지
출렁이는 섬진강가에 서서 당신도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ουλ어는 보았는지요

푸른 댓잎에 베인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는
흐르는 섬진강 물에
서럽게 울어는 보았는지요

김용택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꽃망을 '톡톡'

봄소식은 '광양매화'가 전해주는 구나

매화향기 가득한 섬진강변 매화마을

해마다 3월이면 광양시 섬진강변 매화마을은 매화가 지천이다. 섬진강 줄기따라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며 상춘객들을 맞이하는 매화마을. 봄의 전령사인 매화는 어느덧 광양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 됐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라면 '봄=매화=광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김용택 시인의 표현처럼 '매화꽃 꽃 이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이곳이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겨울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은 매화처럼 하얀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으리라.

올해는 구제역과 AI 여파로 제20회 매화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매화마을은 여전히 매화 천지를 이루며 상춘객들을 맞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광양. 그래서 광양의 봄은 특별하고 늘 설레며 상춘객들에게 지난날의 추억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을 전달한다.



은은한 매화 향 맡으며 ‘힐링’ 해볼까

광양시는 매화 개화 기간 동안 관광종합안내소 운영, 교통지도 및 주차안내, 화장실 확충 등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해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다.

봄 나들이, 광양 매화마을로 떠나보자. 그럼, 매화마을에는 어떤 볼거리와 힐링 장소가 있을까.

우선 상큼한 봄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것으로 강력히 권하고 싶다. 섬진강 줄기 따라 매화가 만발하는 다압면은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아기자기한 산책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 섬진강 둔치에 차를 세워놓고 우선 섬진강변을 따라 한걸음씩 떼어보자. 약간 쌀쌀하면서도 은근한 매화향을 가득 품은 섬진강 바람에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된다.

섬진강변따라 걷다보면 수월정이 반겨준다. 수월정에서 바라다보는 섬진강, 그리고 수월정을 중심으로 양증맞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적합하다. 이곳에서는 지역 가수들이 무료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데 운이 좋다면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이곳에 매화를 처음 심은 김오천 용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추모비도 있다. 수월정을 지나면 매화마을의 상징인 청매실농원이 나타난다. 매화마을은 청매실 농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그야말로 매화세상이다. 다양한 산책길이 있는 데, 발길 닿는대로 가면 된다. 온통 하얗게 물든 청매실농원 어디에서나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될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매화를 보며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는 장독대가 상춘객들을 반겨준다. 청매실농원 장독대는 홍쌍리 매실 명인이 수십 년 동안 향아리를 수집해 매실과 된장, 고추장 등 장 종류를 저장해 놓았다. 향아리 크기는 물론, 향아리 수가 2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향아리 군락과 매화가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카메라를 꺼낼 정도로 운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매화에 파묻혀 아담하게 지어진 초가집이 있는데, 이 초가집 역시 매화마을을 상징하는 곳이다. 영화 취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배경 장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상춘객들이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쉬며 여유를 만끽한다.

청매실농원 정상에 오르면 푸른 섬진강과 만개한 매화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전국 상춘객들이 해마다 광양 매화마을을 찾는 이유는 바로 섬진강과 매화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마음의 여유, 힐링 때문이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매화마을의 전경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빼어난 광경을 보여준다.

매화가 활짝 피는 시기에는 골목길 사이사이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매화마을 직거래 장터에서는 매화 묘목부터 매실 장아찌, 매실 원액, 꿀, 녹차, 감 말랭이 등 맛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훈훈한 인심이 함께 한다.





꽃, 산 그리고 강이 있는 곳 메아리창조마을

광양시 다압면에는 매화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하는 곳이니 만큼 이맘때쯤이면 다압면 섬진강변 어디서든 하얀 매화를 볼 수 있다.

청매실농원이 있는 매화마을을 지나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구경하며 섬진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섬진강 금천권역 메아리 마을이 있다. 섬진강 금천권역 메아리 마을은 다압면 금천리의 마을인 염창마을, 매각마을, 직금마을, 평촌마을, 서동마을, 동동마을 6개 마을을 합쳐 만든 마을 통합브랜드이다. 봄의 전령사 매화, 햇살담은 푸른 매실과 은빛 모래(섬진강)가 있는 메아리마을이다.

다압면 금천권역은 뒤로는 백운산의 도솔봉과 정상, 매봉, 갈미봉, 꽃비산, 불암산까지 봉우리가 이어진다. 앞으로는 백운산과 지리산 계곡사이로 흐르는 섬진강,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에 합류하는 아름다운 금천계곡이 있어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른다.

금천권역에는 메아리 휴양소가 있다. 메아리 휴양소는 다압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동 6개실, 식당, 세미나실, 수영장, 족구장, 캠핑장, 다목적광장 등 편의시설과 별도 휴양촌 2동과 다목적 체험관 1동이 있다.

강울림 펜션, 산울림 펜션 2동은 2층으로 된 복층형 독채 펜션으로 가족 단위로 조용한 숙박이 가능하다. 또 메아리 휴양소의 메인 건물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숙박

이 가능하다. 식당이 준비되어 있어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으며, 바로 앞에 수영장, 족구장이 있어 보다 즐거운 숙박을 할 수 있다.

메아리 휴양소 내에는 캠핑장도 있다. 공동취사실, 공동 화장실, 세면대 등 공공시설이 잘 구비 되어 있어 편리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벚꽃이 휘날릴 때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여름이면 휴양소 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며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메아리휴양소에서는 4계절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른 봄 고로쇠체험부터 여름에는 매실 따기, 매실장아찌체험, 가을에는 감따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숙박예약이나 체험문의는 메아리 창조마을 홈페이지(www.echovil.com) 또는 전화 (061-722-3236)로 문의 하면 된다.

이렇게 좋은 곳 둘레길이 빠지면 섭섭하지 않을까? 메아리창조마을을 중심으로 기존의 농로, 자연로, 샛길 등을 연결하여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했다.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계곡길을 따라 숲길을 따라 메아리둘레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섬진강의 자태와 어머니의 품 같은 백운산의 정취에 흠뻑 빠질 것이다.



메아리 둘레길 코스

- ▶ **소망길** : 메아리휴양소 - 소망길 계단 - 소망의 종 (0.7km, 15분)
- ▶ **동동길** : 메아리휴양소 - 동동마을회관 - 후박나무군락지 (2.6km, 40분)
- ▶ **서동길** : 메아리휴양소 - 농바위쉼터 - 서동마을회관 - 서동민박 (1.8km, 25분)
- ▶ **비단짜는길** : 직금마을입구 - 옥녀정(직금우물) - 직금마을회관 - 직금삼거리 (1.6km, 25분)
- ▶ **고사리길** : 매각마을입구 - 매각마을회관 - 매각우물 - 매각삼거리 (0.7km, 15분)
- ▶ **소금창고길** : 염창마을입구 - 염창마을회관 - 염창삼거리 (0.4km, 10분)
- ▶ **매화길** : 메아리휴양소 - 매각마을입구 - 염창마을입구 - 매화랜드 (3.2km, 40분)
- ▶ **하늘길** : 소망의종 - 소망의종 삼거리 - 족보바위 - 염창마을 - 매화랜드 (4.7km, 1시간20분)



이곳이 바로 별천지, 봄 · 꽃 · 별을 품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1,500만 개 수놓은 LED 별빛, 산림욕 · 글램핑 즐기며 '생태체험'

매화마을 지척에는 황톳길 편백나무 향기 숲에서 낮에는 산림욕을 통해 '힐링'을 하고 밤에는 지리산 자락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곳. 느랭이골 자연리조트가 있다. '느랭이'란 암고라니 또는 암노루를 부르는 호남지방의 사투리인데 휴양림이 위치한 골짜기가 느슨하고 완만한 선을 그리며 길게 늘어진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느랭이골'이라 부른다.

광양시 다압면과 진상면의 경계지역에 있는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백운산과 섬진강 700리 물길을 갈무리한 백운산 끝자락 해발 450m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망덕포구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북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섬진강 700리와 경남 하동시내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봄에는 매화와 철쭉이, 여름에는 짙푸른 숲으로 이뤄진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 숲과 아름답게 조성된 생태정원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남는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해발 400M에 조성되어 산세에 눈의 시원

함을 느낄 수 있다. 호남 정맥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모여 이루는 넉넉한 자연을 품어 웅장히 늘어선 편백나무 숲, 암석, 야생화들이 내려놓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다.

특히 야간 조명과 별천지를 구경하고 싶다면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를 추천한다. 느랭이골에는 1년 내내 별빛축제 가 열리는데 해가 진 저녁 시간 느랭이골 주차장에 들어서 느랭이골을 올려다보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땅 위에는 1,500만개로 이루어진 LED 별빛이 느랭이골의 밤을 가득 채우고 있다. 꽃, 동물, 곤충, 공룡, 캐릭터 조형물과 조명으로 구간마다 테마를 이루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연인과 함께와 속마음터널에서 사진을 찍고, 동물들로 이루어진 동물 조명공원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사진에 담아보자. 별빛 식물공원 하트 벤치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과 슬며시 하트를 그리며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느랭이골 아래에서 본 모습은 안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별과 빛의 향연에 더 큰 아름다움과 설렘으로 빠져든다.

이곳에서 하루 숙박이 가능하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맨 꼭대기로 가면 글램핑장이 있다. 캠핑하면 모닥불에 바비큐 파티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낭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번거로운 텐트, 불편한 잠자리 걱정 없이 캠핑할 업무를 못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글램핑을 추천한다. 글램핑은 편리한 시설에 캠핑의 낭만까지 느낄 수 있다. 2~4인의 인원이 사용가능한 10평 크기의 텐트 안에는 캠핑냉난방 시설과 편백나무가구, 샤워부스를 갖추고 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봄, 꽃, 별' 이 모든 것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곳. 광양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에서 추억과 낭만을 한아름 쌓아보자.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길 119-32
- 예약 : 전화 1588-2704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www.neuraengigol.com

● 글램핑장 전경



● 글램핑 내부



● 글램핑장의 밤



bicycle trail tour along seomjingang

꽃길 따라 섬진강 따라

쉬엄쉬엄 쉬어가는 **자전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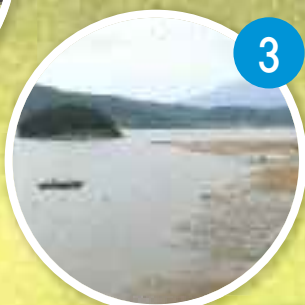
섬진강댐에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154km의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38km 광양구간에선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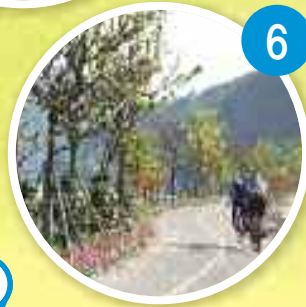
1 섬진강 종주자전거길 종착점이자 시작점일 수 있는 배알도 수변공원에는 유(무)인 인증센터가 있다.



2 섬진강이 드디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섬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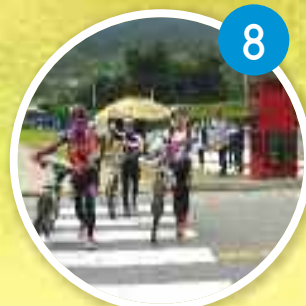
3 태인대교에서 내려다본 섬진강의 모습은 지나치며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6 섬진강 물길과 함께 어우러진 꽃길과 함께 4계절 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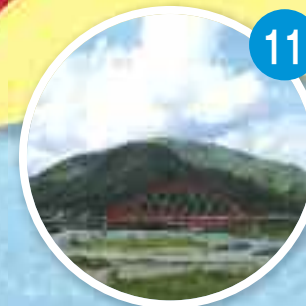
7 화장실도 개성 있게! 빨간 우체통 화장실에서 쉬~어 가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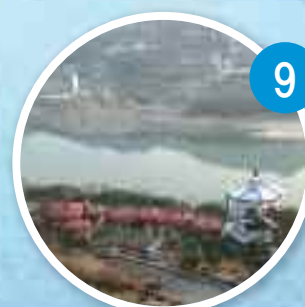
8 하얀 매화가 우리를 반긴다. 광양 매화마을. 커다란 두꺼비 입속으로 들어가면 쉴 수도 있고 인증 도장도 찍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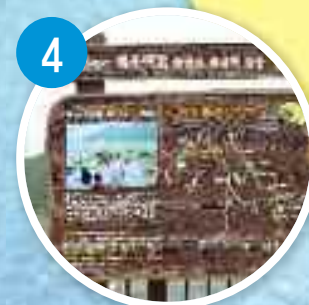
10 깔끔하게 정비해 놓은 송정공원에서 섬진강을 한눈에 내려 보며 시원한 물 한 모금 하며 사색에 잠겨 본다.



11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 남도대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난간을 칠해 태극문양을 상징화 하고 있다. 인증도 잊지 마시길.



9 섬진강을 바라보며 황토, 편백, 옥으로 인테리어 한 매화랜드에서 하룻밤 쉬어가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실 듯하다.



라이딩도 식후경. 횃집이 줄서 있는 망덕포구는 강굴(벚굴), 백합, 전어 등 사계절 먹거리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대한민국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시인 윤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존돼 있었던 정병옥 가옥이다.

매화와 벚꽃 가득한 광양... '강굴(벚굴)'로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볼까



섬진강 강굴 크기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매화 구경도 실컷 하고 느랭이골에서 별구경도 하고 섬진강을 따라 라이딩도 즐겼다면 이제 식욕을 채워 볼 차례 아니겠는가?
광양에는 9미가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굴이라 친숙하지만 크기와 이름이 생소한 섬진강에서만 난다는 강굴이 그 주인공이다. 매화와 벚꽃이 눈꽃처럼 흩날리는 봄이 오면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벚굴이라고도 불리는 강굴은 강에서 나는 굴을 말하는데 벚꽃 필 무렵이 가장 맛있다고 해서 벚굴이라 불린다고도 전해진다. 강굴은 매년 2월이 되면 알이 차기 시작해 3~4월에 맛의 절정을 이루는데 매화와 벚꽃이 피는 시기인 요즘이 딱 제철이다.

강굴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점에서 자라는데 오직 섬진강에서만 나온다. 섬진강 가장 끝자락인 진월면 망덕포구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어서 예로부터 강굴 생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점은 플랑크톤이 풍부해 물고기들이 제법 큰데, 이곳에서 자란 벚굴의 크기도 엄청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람 얼굴보다 큰 강굴을 보고 과연 이게 굴이 맞는지 깜짝 놀랄 정도이다.

강굴은 크기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강굴에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전해지는데 성인병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일반 굴은 양식을 할 수 있지만 강굴은 민물과 짙물이 만나는 곳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머구리'라는 잠수부가 수심 3~4m 깊이의 바위에 들어가 직접 채취한다. 그래서 광양 강굴은 전부 자연산!

진월면 망덕포구 강굴 맛보고 윤동주 시도 떠올리며

강굴을 맛 볼 수 있는 곳, 섬진강과 남해안이 만나는 진월면 망덕포구다. '섬진강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횃집이 줄줄이 늘어섰다. 어느 횃집을 가더라도 맛있는 강굴을 먹을 수 있다. 벚굴의 묘미는 무엇보다 식감이다. 일반 굴에 비해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입에 넣어 입안에 가득 고인 강굴의 풍성함과 육즙 가득한 굴의 향기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바다에서 나는 일반 굴처럼 짭맛이 나기 보다는 민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식감에 강굴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도 그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벚굴은 일반 굴처럼 구이, 전, 튀김, 죽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굴 구이는 꼭 익히기 보다는 굴껍질이 살짝 벌어질 정도로만 가볍게 익혀 먹으면 굴 특유의 맛과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망덕포구에서 강굴을 즐긴 후에는 시인 윤동주 유고가 보관된 정병옥 가옥을 가보는 것도 좋다. 올해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입맛 잃어버리기 쉬운 나른한 봄이다. 기지개를 활짝 펴고 섬진강 물줄기 따라 매화와 벚꽃도 마음껏 구경하고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광양의 특산품인 강굴도 먹으며 입맛도 되살리자.



• 망덕포구
• 시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 • • 망덕포구 전경



다둥이 가족
조명기 · 안미진 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
아이들도 多, 행복도 多

광양읍 용강리 창덕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명기 · 안미진 부부는 무려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다둥이 가족의 아빠 · 엄마이다. 가장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막둥이는 3살이다.

자녀 성별은 '딸-딸-딸-딸-아들' 이다. 누가 보더라도 아들을 낳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둥이 엄마 안미진 씨는 "아들 욕심이 없는건 아니었지만 막내가 딸이었어도 서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도 딸들만 키우다가 아들이 태어나 키워보니 다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해서 더욱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다둥이 엄마 안미진 씨는 "친구네 가족은 아이들이 여섯 명"이라며 "어찌 다보니 주변에 다둥이 가족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집이 특별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씩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이름은 경연 · 서연 · 수연 · 성연 · 영현이다. 첫째 경연이는 현재 광양여고 2학년이며 서연이는 광양여중 1학년, 수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 성연이는 이제 6살이다.

막내 영현이와 큰 누나 나이 차이는 15살이나 난다. 다둥이 엄마 안미진 씨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큰 아이가 막내를 너무 예뻐해 학교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와도 힘든 내색 없이 동생을 잘 돌봐 준다"며 "공부도 첫째 딸이 공부를 꽤나 잘해서 둘째 공부를 봐주고 둘째는 셋째 공부를 가르쳐주며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하고 있다"고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아이들이 많다보니 빨래 양이 엄청나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건조대 몇 개에 빨래가 가득 널려있다. 그것만 보아도 다둥이 엄마의 고단함이 엿보인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 힘이 난다고 한다. 다둥이 엄마는 "먹성 좋은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고 있어서 뿌듯하다"고 좋아했다.

요즘 광양시에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았냐는 질문에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정책들이 생겨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어 매우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둥이 엄마 안미진씨는 "아이를 많이 낳은 것에 대해 절대 후회 하지 않는다. 차라리 다둥이 가정을 추천해 드린다"며 "형제가 많으니 아이들이 배려할 줄도 알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많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엄마와 아이들
• •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엄마
• • • 조명기 안미진 부부와 5명의 아이들
막내 돌잔치 때 가족사진

어울림을 추구하는 청년 도예가 하신혁 씨



2017년 광양시 화두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만들기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국가적으로 청년 고용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주거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올해 청년 활동과 지원을 뒷받침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협의체를 만들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광양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선샤인 광양 봄호에서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세상을 당당히 개척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CEO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인공, 청년 도예가 하신혁(29) 씨를 소개한다.

■ 프로필

- 광양시 광양읍 출생
- 광양중학교
- 광양고등학교
- 상명대학교 세라믹디자인학과 졸업
- 제1회 온궁미술대전입선
- 제11회 도솔미술대전 입선
- 제17회 순천시미술대전 우수상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도예심리상담사 2급
- 현, 하세라믹공방 운영

“소통하고 공감하는 작품 많이 만들고 싶어”

“많은 사람이 제 작품을 쉽게 공유하고 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품 가치가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광양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광양읍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하신혁 도예가. 봉강면 구불구불 길을 따라 가다 보면 햇살수련원이 있는데 건물 안 ‘하세라믹공방’이 그의 작업실이다. 젊은 도예가 하신혁 작가는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청년으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신혁 작가의 원래 꿈은 광고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세라믹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자기와 인연을 맺었다. 하 작가는 “대학 진학 후 전과도 생각했었는데 도예의 매력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솔직히 대학 시절 지금 도예가로서의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씩스레 웃었다.

도자기에 대한 기초부터 이론, 실습에 이르기까지 전공수업을 들으며 하 작가는 도예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도자기로도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이후 하 작가는 도예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도예가의 길을 걷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대학졸업 후 서울에서 생활하며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험난했다. 조그마한 여유도 찾을 수 없어 그는 서울 대신 고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예술가가 지방에 자리 잡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2015년 하 작가는 고향인 광양에 터를 잡기로 하였다. 부모

님이 살고 있고 무엇보다 농촌의 6차 산업과 연계해 작업공간과 체험공간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계기가 되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은 무엇일까. 하신혁 작가는 “대학 다닐 때 만든 작품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아무래도 그때는 작품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 작가는 이어 “지금 만드는 작품들 대부분은 판매용”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인지 하 작가의 작업실에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식기들이 많이 보인다. 식탁이 음식과 어떻게 해야 잘 어울리는지,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도자기는 어떻게 제작할지 그는 끊임없이 연구한다. 하 작가는 “일반 그릇이더라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도자기를 제작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신혁 작가는 앞으로도 상품성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쉽게 공유하고 접할 수 있는 게 그의 꿈이다. 하 작가에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했다. “같은 입장이라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평생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함께 열심히 버텨보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며 힘을 북돋워줬다. 마지막으로 하신혁 작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광양시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사라실 예술촌'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라실 예술 촌장 조주현입니다.

사라실은 예술촌이 있는 사곡리의 옛 이름입니다.

최근 가족 단위의 여행 트렌드에 발 맞춰 이들을 흡인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농촌 체험형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촌의 맑은 공기와 주변 경관은 자연 속에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넓은 공간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학교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라벤다 농장과, 주말농장, 자연학습원등을 연계해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복합농촌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사라실예술촌장과 함께하는 도예공방

체험교실 :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실, 생활자기 만들기, 흙을 이용한 역사체험 교실, 자연물을 활용한 도예교실, 연중운영

문의 : 010-3666-9223

조주현 사라실 예술촌장 프로필

- 국회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문화예술명인
- 세계 유네스코(문화유산)수공예 등록
- 전라남도, 순천, 벽골제 미술대전 심사위원
- 세계무형 엑스포 초대작가
- 한국공예 100선 작가
- 국제 아트페스티발(여수)초대작가



이광일의 뮤직 공감

정통 이탈리아 벵칸토 창법을 기초로 가창에 필요한 호흡 및 발성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곡, 이탈리아 칸초네를 비롯해 가요까지 어떠한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 : 성악교실, 남성합창, 가곡교실

문의 : 010-4166-7837



이태경의 올리브 공방

올리브 목공방에서는 사진 인화 서비스와 인테리어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여 목공방이 보유하고 있는 선택, 보정된 사진을 인쇄해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597-9367



김경희의 천연염색

매염제와 온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염색의 세계로 아이들과 어른들을 안내 할 수 있게 된 나는 이 행복한 색채의 세계를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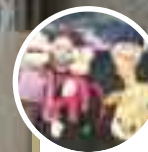
체험교실 : 에코프린팅, 바틱문양염색, 울스카프, 쪽문양염문의 : 010-6805-2220



김명선의 가족공예

가족의 역사는 인류가 터득한 가장 오래된 기술로 석기시대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실생활에 활용한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작품 활동을 통해 정서안정과 집중력, 성취감, 창의성을 얻을수 있습니다.

체험교실 : 매화꽃필통, 가족연필꽃이, 동전주머니, 병아리 가방걸이



인형전문극단 라파라파

라파라파 인형극단원들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인형극을 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체험교실 : 향기인형, 양말인형, 발도로프인형 만들기, 캐릭터 탈, 반탈 만들기, 과일·유아 놀잇감 만들기
문의 : 010-6643-2060

※ 공연은 2017년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박상희의 종이세상

종이공예는 한 장의 종이에 꿈을 담아 귀여운 동물이나 아름다운 꽃을 접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즐거움을 충족시키며, 두뇌개발과 지각능력을 길러 창작의 즐거움을 줍니다.

체험교실 : 해바라기시계, 꽃시계, 방향제, 해바라기 액자, 향페이퍼 케익,액자, 향 스텐드
문의 : 010-2823-5308



이인선의 한지공예

전통한지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우리민족의 자긍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지공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름답고 살아 숨 쉬를 느낄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매개체입니다.

체험교실 : 한지 뜨기, 한지등 만들기, 한지소품 만들기, 한지 악세사리 만들기, 한지 인테리어 맞춤 가구 만들기, 닥종이 인형, 지호공예, 지승공예, 한지그림 체험



전경미의 아로마 공방

100%자연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피부제품과 다양한 DIY를 만드는 향기를 머금은 아로마 DIY공방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아로마 공방에서 만들고 쓸 수 있는 피부제품, DIY 만들기 체험으로 좋은 추억과 향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아로마캔들, 석고방향제, 디퓨저 만들기
문의 : 010-2606-4296



최지원의 플라워 디자인

아자열매에서 뽑아낸 실로 얼얼얼렁하게 직조한 천연섬유에 염색을 하고 풀을 먹여, 꽃을 만들어 전통 옹기나 화기에 장식하는 우아하고 격조 있는 수공예 미술 작품입니다.

문의 : 010-4623-6363

사라실 예술촌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
- 시설 : 창작실 8개소, 체험장 1개소, 목합문화공간 1개소
- 운동장 : 1개소(2000평규모)

의회소식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광양시의회는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제258회 임시회 (2017.1.16.~1.20, 5일간)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결보류)
-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부결)
-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 총무위 : 2017. 1. 18. ~ 1. 19. (2일간)
- 산건위 : 2017. 1. 17. ~ 1. 18. (2일간)

임시회 관련 영상 보기

제258회 임시회 관련 영상은 광양시의회홈페이지 (<http://council.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총무위원회)



●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산업건설위원회)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광양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13명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광양지역에 세풍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 출입구를 광양시권과 연결이 어렵도록 불합리하게 개설하는 등 각종 기반시설계획(도로망, 용수공급체계)이 광양시 발전에 역행 할 것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2017년도 의회운영일정

회 기	기 간	일수	안 건
제258회 임시회	1. 16.(월) ~ 1. 20.(금)	5	•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59회 임시회	3. 15.(수) ~ 3. 24.(금)	10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0회 임시회	4. 12.(수) ~ 4. 20.(목)	9	• 시정질문 및 답변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1회 임시회	5. 10.(수) ~ 5. 16.(화)	7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2회 정례회	6. 12.(월) ~ 6. 21.(수)	10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 하절기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제263회 임시회	7. 13.(목) ~ 7. 21.(금)	9	• 시정질문 및 답변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4회 임시회	9. 6.(수) ~ 9. 12.(화)	7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5회 임시회	10. 12.(목) ~ 10. 20.(금)	9	• 시정질문 및 답변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6회 임시회	11. 2.(목) ~ 11. 10.(금)	9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제267회 정례회	11. 21.(화) ~ 12. 15.(금)	25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예산안 • 안전처리 (조례안, 일반안)

※ 본 계획안은 의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토의정



● 신년 현충탑 참배 (1.2.)



● 광양상공회의소 2017년 신년인사회(1.3.)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개청식 (2.17.)



● 제306회 의원간담회(1.2.)



● 전남 드래곤즈 사장 광양시의회 방문 (2.10.)



● 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2.3.)

볼거리
입을거리
먹을거리 가득...

LF스퀘어 광양점 100배 즐기기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 국내 최초 테라스형 복합 쇼핑몰로 지난 1월 20일 정식 개장한 LF스퀘어 광양점. 광양읍 덕레리에 자리잡은 LF스퀘어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0만1138㎡, 영업면적 7만1634㎡를 자랑한다. LF스퀘어 총 매장수는 285개이며 의류매장 뿐만 아니라 영화관, 푸드점 등 각종 쇼핑몰이 입점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볼 것 같은 LF스퀘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쏠쏠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을까. 음식부터 쇼핑, 영화까지 100배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본다.



오전 11시 개장, 밤 10시 폐장

LF스퀘어는 오전 11에 개장하여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LF스퀘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 혼란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개장 초기 주말 교통대란이 발생했었지만 지금은 광양시와 LF스퀘어 측의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된 상황이다. 주변 눈을 임대해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교통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LF스퀘어는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동의 이름은 '오션동' '선샤인동' '가든동'이다. 그냥 단순히 지어진 것은 아니다. 바로 광양만권의 3개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의 특징을 표현해 명명했다. 오션동은 해양을 상징하는 여수시, 가운데 선샤인동은 태양과 빛을 상징하는 광양시, 가든동은 순천만정원을 상징하는 순천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를 알면 LF스퀘어 구조가 알기 쉬워지는 듯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입맛 사로잡는 '푸드 포레스트'

LF스퀘어에 도착하면 이곳의 자랑인 '푸드 포레스트'가 있다. 푸드 포레스트는 가든동 1층에 있다. '푸드 포레스트' (FOOD FOREST)란 숲을 테마로 동화적인 인테리어를 통해 숲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듯 하다.

푸드 포레스트에는 50여 개의 전국 유명 맛집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곳을 선택하여 식사를 하든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눈에 띄는 것은 광양한우촌, 나주곰탕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메뉴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광양한우촌은 광양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했던 식당이 입점하여 광양의 특색을 살린 신선한 육회가 듬뿍 들어간 육회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3층에도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기호에 따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고를 수 있다.

쇼핑삼매정에 빠져볼까?

각종 쇼핑은 선샤인동과 오션동 전체에서 할 수 있다. 전부 실내에 모여 있어서 각 매장마다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각 동을 이어주는 연결통로에는 식당과 커피숍이 있어 폭풍쇼핑 중 지친 심신을 잠시 달랠 수 있다.

연결통로 2층에는 아름다운 화단으로 조성된 테라스 스트리트가 있다. 쇼핑 중 잠시 밖으로 나와 걸으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추후 버스킹 공연이 기획중이라고 하니 꼭 다시 와 즐겨 보고 싶다. 연결통로 3층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푸드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날씨가 좋은날엔 소풍 나온 기분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LF스퀘어 광양점만의 특별한 공간

LF스퀘어에는 광양만의 특별한 공간이 두 곳 있다.

첫 번째는 로컬푸드다.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매화빵, 매실고추장, 재첩국, 꽃감 등 광양특산물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양관광안내소다. 선샤인동 2층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들려 광양에 대해 안내도 받고, LF스퀘어를 나와 관광할 곳도 추천 받을 수 있다.



쇼핑이 끝났다면 이제 영화보기!

다시 가든동으로 돌아와 영화관으로 향한다. 가든동 3층으로 가면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관 카운터에서 영화를 예매한 후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 영화 티켓 구매! 영화시작 시간이 남았다. 시간 때울 걱정은 NO!

영화관 바로 옆에 대형서점 '북스리브로'가 있어서 책을 보며 시간 보내기 그만이다. 휴대폰 약세사리, 이어폰 등 다양한 물건도 판매하고 있다. 영화관 바로 한층만 내려가면 지역 최초로 거주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콘셉트 룸샵인 한샘 종합관이 있어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가든동 3층에는 곧 키즈파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 LF스퀘어 광양점 내 관광안내소 모습
- LF스퀘어 광양점 내 로컬푸드
- 로컬푸드에서 판매중인 광양매화빵
- 육회비빔밥을 맛볼수 있는 광양 한우촌



광양 건강 매실, 아삭하고 상콤한 빵으로 탄생!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광양매화빵**

LF스퀘어 내 로컬푸드 마켓과 온라인 우체국 쇼핑에서 구매 가능

‘광양매화빵’을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다.

지난해 ‘광양매화빵 상품화 사업’을 통해 광양매화빵을 개발·판매 중인 ‘빵집이야기(대표 안선희)’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광양매화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해 전국판매에 나섰다.

(주)광양매화빵은 HACCP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제조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법인을 구성해 제품의 원료가 되는 광양매실 구입부터 광양매화빵의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야기’뿐 아니라 LF스퀘어 내 로컬푸드 마켓에서도 1월 18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으며,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안선희 대표는 “작년 한해 동안 광양매화빵이 전국에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매화빵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지만 유통의 한계에 부딪쳐 원하는 곳에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광양매화빵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광양매실의 소비가 더욱 촉진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판매될 수 있길 바란다.

판매 : 광양매화빵(9개입) 9,000원, 상크미매화빵 (12개입) 9,000원, 선물용 (24개입) 20,000원
문의 : 061-761-0801



광양 백운 복분자주 2월의 남도 전통술로 선정

저온 장기 휴면 발효공법을 이용, 깔끔한 맛을 내는 프리미엄 술

전라남도도는 우수 전통술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품평회 등에서 입상한 전통주를 대상으로 매월 ‘이달의 남도 전통술’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주)백운주가(대표 최창석)의 ‘백운 복분자주’가 2월의 전라남도 전통술로 선정됐다.

‘백운 복분자주’는 백운산 줄기의 맑은 물과 친환경 복분자를 이용해 저온 장기 휴면 발효공법으로 생산한 전통술로, 잡냄새가 없는 깔끔한 맛으로 프리미엄 술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주류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그 진가를 인정받았으며, 2014년도에는 벨기에 주류품평회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 전국의 수많은 전통주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도 최고의 명주를 만들어 낸 (주)백운주는 2006년 옥룡면에 자리 잡고 대표적인 술로 ‘백운 복분자주’와 ‘매실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블루베리주, 홍삼주, 송이주 등 여러 전통술도 제조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취향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류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 업체다.

광양을 대표하는 ‘백운 복분자주’가 전국에서도 인정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을을 이어서 공동체

주민에게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마을을 바꾼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가는 마을 공동체

마을이란?

함께 이야기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동네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과 마을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을 마을이라 한다.

+

공동체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전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광양시 마을공동체의 꿈

- 주민이 이끌어가는 마을공동체 형성
-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 오래토록 함께하는 주민주도 마을시대 실현



구례군

삼돌이 화합축제
(봉강면 당저마을)



형형색색염색체험
I LOVE SUNSHINE
(광양읍)



꾸러기밥상
광양남해오피스아파트
(광양읍)



공동돌봄 나눔터 및 품앗이
송보7차아파트(광양읍)



동동 장수마을 건강걷기
(옥룡면 동동마을)



청춘백세 건강마을 쉼터조성
(다압면 원동마을)



● 함께돌봄공동체

과거 온 마을이 함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던 것처럼 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함께 돌봄으로써 공동체간 소통과 품앗이 문화로 발전시킨다.

● 마을보물밭골공동체

우리 마을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직접 기획해서 보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통해 개인의 삶의 터에 관심이 모여 밝은 세상 만든다.

● 함께나눔공동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수리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마을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한다.

● 함께즐김공동체

서로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며 벽을 허물고 활기차게 소통하며 행복하게 삶을 즐긴다.

문화공간조성

문화공간 고시내길 39(다압면)
진월호박연구회(진월면)



바람난장

광영큰그림기획연구소
(광영동)



꽃밭쉼터조성

우림필유아파트자율방범대(중마동)
중마2주공아파트부녀회(중마동)



광양 아이 행복 청년 희망 그리고 여성 천국으로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랜 경력단절로 구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취업희망 여성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지난 2월에는 제1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직기술과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성이여! 취업을 잡(job)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원이 강사로 나서 ‘나를 이해하기’, ‘직업탐색’, ‘진로 목표 설정’, ‘자기관리법’, ‘취업 준비하기’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제1기 참가자는 12명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80% 이상 출석하는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올해 집단상담은 2월부터 매월 2기씩 진행되며, 11월까지 총 20기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과 문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797-1970~6)로 하면 된다.

배우고 일하는 건강한 여성, 광양의 힘입니다.

광양여성문화대학

광양시 여성문화센터는 2월 2일 52기 여성문화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여성문화대학은 87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총 7개 과정 43개 과목을 운영하며,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강좌별 12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격증반이나 야간 직장반의 경우는 남성도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광양여성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gwangyang.go.kr/edu/index.gwangyang)을 통해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과제빵,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증과정과 양재초·중급, 홈패션 등 기술창업지원과정, 한국화, 수채화 등의 문화·취미과정, 댄스스포츠, 요가 등 야간과정 등이 있다.

단 인기과목(양재 초·중급, 요가, 미용사, 헤어실생활응용)과 수강료면제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등록장애인, 다자녀세대 등)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수강료 면제자는 접수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3개월분에 주 6시간 이상 과목은 45,000원, 6시간이하는 30,000원이다.

52기 여성문화대학이 진행 중이며 현재 수강신청이 끝난 상태이다. 하지만 4월 중 53기 광양시여성문화대학을 모집할 예정이니 52기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미리 챙겨두었다 신청해 여가생활도 즐기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길 바란다.

문의는 광양시 여성문화센터(797-2782, 2347)로 하면 된다.



제52기 여성문화대학 과정별 모집인원

▶▶ 자격증 과정 (15)

- 제과제빵기능사 24명 김윤혜
- 도배기능사 12명 김성숙
- 공인중개사(민법) 20명 김문성
- 피부미용사 16명 전경미
- 컴퓨터활용능력(엘셀) 20명 한용금
- 그림책 감성코칭지도사 20명 하희영
- 웃음치료&레크레이션지도사 20명 이정혜
- 한식조리기능사 24명 이형자
- 경매기초과정 30명 배영남

- 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20명 배영남
- 미용사 20명 유덕임
- 중식조리기능사 20명 김윤혜
- 동화구연지도사 20명 하희영
- 종이접기와 클레이 20명 김미순

▶▶ 외국어 과정 (2)

- 일본어 20명 김석경
- 중국어 20명 김승철
- 정보화과정 20명 허수연

▶▶ 문화·취미 과정 (16)

- 수채화 20명 김미숙
- 요가 30명 박영미
- 청춘노래교실 40명 주소영
- 한국무용 20명 박일자
- 기타교실 초급 20명 명성중
- 생활도자기 초급 20명 조주현
- 한지공예 16명 이인선
- 라인댄스 20명 최태숙
- 화조화와문인화 작품배접 20명 백응운

- 댄스스포츠 24명 김수영
- 노래교실 40명 주소영
- 한국무용 작품반 20명 박일자
- 기타교실 중급 20명 명성중
- 생활도자기 중급 20명 조주현
- 밸리댄스 20명 송미숙
- 생활수묵화와 우드버닝 20명 허영미

▶▶ 기술·창업 지원 과정 (7)

- 양재초급 18명 박은희
- 홈패션 18명 박성필
- 전통웰빙(발효식품) 24명 오정숙
- POP 레터링 & 캘리그라피 20명 최화영
- 양재중급 18명 정문숙
- 어머니밥상 집밥요리 24명 조정자
- 헤어 실생활 응용반 20명 유덕임

▶▶ 동물과정 (2)

- 동물 20명 양향진
- 모듬북 20명 양향진

▶▶ 야간과정 및 직장인 특강 (4)

- 댄스스포츠 24명 김수영
- 요가 30명 전소현
- 파워스피치, 리더쉽 20명 김선규
- 가곡교실 20명 이광일

매화가 진 자리
광양은 온통 벚꽃 세상

꽃나들이 가자

서천변 · 백운대 · 가야산 중북도로 등 유명 벚꽃길...
산책 · 드라이브 '안성맞춤'

광양엔 매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지고 나면 3월 말부터 시 전역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인 4월,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광양 곳곳에 숨어 있는 벚꽃 길을 산책해보자.

◇가야산 중북도로 벚꽃 길

가야산 중북도로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온통 하얀 세상이다. 산길을 따라 벚꽃을 보며 드라이브도 좋고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한 아름씩 떨어지는 꽃눈은 그야말로 보는 이들의 눈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 중마동과 광양제철소 전경도 구경하며 쉬엄쉬엄 걷는 맛이 일품이다. 가야산 공원에서 달달한 커피도 한잔 하며 봄을 감상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다.

◇금호동 백운대 벚꽃 길

광양에서 '벚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금호동 벚꽃길이다. 금호동 주택단지에서 백운대에 이르는 벚꽃 길은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광양의 벚꽃명소다. 최근에는 벚꽃이 피는 시기에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해 밤에도 하얗게 펼쳐진 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금호동에서는 벚꽃축제도 열리고 있으니 공연도 보고 산책도 하고 꽃구경도 하며 하얀 세상을 마음껏 누려보자. 금호동에는 주택단지 무궁화동산과 부석사 앞에 있는 벚꽃 길도 있으니 간단한 도시락과 돛자리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펴고 앉아 봄을 만끽할 수 있다.

◇광양읍 서천변 벚꽃 길

광양읍 서천변 벚꽃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서천변 벚꽃길은 광양시민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산책로다. 유유히 흐르는 서천변과 벚꽃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주변에 체육 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꽃비를 맞으며 운동하기도 좋다. 그뿐 아니라 서천변에는 광양불고기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유명한 광양불고기도 맛볼 수 있다. 자전거길 그리고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광양읍 서천변 벚꽃길, 밤에는 무지개분수 공연도 열리고 있으니 벚꽃도 감상하고 맛있는 광양불고기도 먹고, 무지개분수도 감상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에 좋은 곳이다.

◇진월면 섬진강 벚꽃 길

진월면 섬진강 벚꽃 길은 섬진강 휴게소 뒤에 있어, 섬진강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의 장소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과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풍경, 생각만 해도 그 풍경이 전하는 은은함과 여유는 당장 이곳을 찾아가고 싶어진다. 진월면 망덕길에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 3km가 조금 넘는 산책로를 따라 망덕포구를 감상하고 섬진강 벚꽃길로 들어서 꽃길을 걸으며 봄을 맘껏 느낄 수 있다. 진월면 섬진강 벚꽃 길을 걷다보면 재첩 음식을 파는 식당을 발견할 수 있다. 새콤달콤한 재첩회와 시원한 재첩국 또한 광양 진월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광양읍 서천변 벚꽃길 ●



금호동 백운대 벚꽃길 ●



금호동 백운대 벚꽃길 야간 조명 ●



온통 꽃천지 광양 꽃구경

광양시 옥룡면
옥룡사지 동백꽃
4월



광양시 광양읍
봄꽃 집중 전시회
3.20.~4.2.



광양시 옥곡면
국사봉 철쭉
4월~5월



광양시 죽림리
사라실 라벤더
6월~7월



용의 꿈 부활! 2017년 더 높게 더 멀리 전남드래곤즈

2016 시즌 전남드래곤즈는 '상위스플릿 진출'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구단에 새로운 역사를 새겼다. 지난해 전남의 상위 스플릿 진출은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로 K리그 클래식 12개 팀 중 가장 극적인 팀으로 꼽힐 정도로 2016년 전남드래곤즈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상전벽해(桑田碧海)’ 2016 시즌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남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9번째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득점 없이 비긴 후 노상래 감독은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감독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전남은 1승 4무 4패로 승점 7점을 기록, 11위로 리그 최하위권이었다. 다음날 구단과 상의 끝에 사퇴의사는 접었지만 13라운드까지 전남이 따낸 승수는 고작 1승이었다. 선수도 구단 직원들도 얼굴을 어디에 내놓지 못할 정도로 팀은 급격히 추락했다.



그리고 4개월 후...전남은 6월 중순부터 야금야금 승리를 챙기더니 보란 듯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강등을 걱정했던 팀이 상위 리그에 진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기적을 일궈낸 것이다.

외국인 선수 자일과 토미가 팀에 합류한 후부터 전남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하며 시즌 중반부터 도약하기 시작하였다. 7월부터 8승을 올리며 서서히 중위권에 도약한 전남은 결국 최종 성적이 5위에 오르며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반전이자 각본없는 드라마를 연출한 전남드래곤즈가 막강한 저력을 보내준 한 해였다.



전남드래곤즈
노상래 감독

자신감 되찾고 '용의 꿈' 부활한다

올 시즌은 K리그가 승강제 및 스플릿 시스템을 시행한 지 5년째 되는 해이다. 그 어느 때보다 12개 팀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 시즌을 거울삼아 올해는 더욱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지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성적이 워낙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올 시즌 각오는 어느 해보다 더 절실하다. 최근 신승재 신임 사장 부임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선수와 구단이 올 시즌 큰 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의 올 시즌 목표는 지난해 성적에서 한 단계 더 목표치를 올렸다.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구단 목표인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아시아챔피언스리그(afc)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수와 구단이 의기투합했다.

지속적인 유소년 투자와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통해 프랜차이즈 스타 육성도 올 시즌 목표 중 하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팬들과 소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전남드래곤즈의 올 시즌 목표다. 또한 차별화된 팬 서비스, 즐겁고 재미있는 축구장을 만들어 지역민과 함께 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향토 구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화려하게 개막한 K리그 2017 시즌. 경기장에 직접 가서 선수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고 마음껏 응원해보자. 팬들이 응원 소리에 선수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패기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노상래 감독 각오

“선수 유출이 없다는 게 고무적이다. 가축처럼 끈끈하고 전력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다. 최근 일본에서 네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새로 가세한 폐체신은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3~4팀 정도 우승 경쟁을 할 것 같다. 이 팀들을 위협하겠다. 4위권이 목표다. 과거 상위와 하위 스플릿 모두 경험했는데, 절대 하위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최효진 선수 각오



“선수들에게 상위 스플릿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한다. 사실 리그 우승은 어렵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FA컵

우승은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팀 완성도에서 불완전했다. 지금은 조직력, 선수 구성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빅클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상 없이 지금 전력을 유지한다면 자신 있다”

한찬희 선수 각오



“선수도 즐겁고, 관중도 즐거운 축구를 하고 싶다. 대표팀에서 4강을 달성하고, K리그에 선 소속팀을 상위 스플릿을 넘어 4위로 올리

고 싶다. 올해는 한찬희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축구보러 GO! 전남 드래곤즈 경기 일정

라운드	일자	시간	대진	장소
1	3. 5.(일)	15시	전남vs전북	전주종합경기장
2	3.12.(일)	15시	전남vs상주	광양축구전용구장
3	3.19.(일)	17시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4	4.1.(토)	15시	포항	광양축구전용구장
5	4.9.(일)	15시	대구	대구스타디움
6	4.15.(토)	15시	인천	인천축구전용구장
7	4.22.(토)	15시	울산	광양축구전용구장
8	4.29.(토)	15시	강원	광양축구전용구장
9	5.3.(수)	15시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10	5.7.(일)	15시	광주	광양축구전용구장
11	5.14.(일)	17시	수원	광양축구전용구장
12	5.20.(토)	18시	울산	울산문수구장
13	5.28.(일)	19시	인천	광양축구전용구장
14	6.17(토)	19시	전북	광양축구전용구장
15	6.21.(수)	19시	상주	상주시민구장
16	6.24.(토)	19시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17	6.28.(수)	19시	서울	광양축구전용구장
18	7.2.(일)	19시	제주	광양축구전용구장
19	7.8.(토)	19시	포항	포항스틸러스
20	7.12.(수)	19시30분	강원	평창알펜시아
21	7.15.(토)	19시	대구	광양축구전용구장
22	7.19.(수)	19시30분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23	7.22.(토)	19시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4	8.2.(수)	19시	상주	광양축구전용구장
25	8.6.(수)	19시	포항	포항스틸러스
26	8.12.(토)	19시	전북	광양축구전용구장
27	8.19.(토)	19시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28	8.26.(토)	19시	대구	광양축구전용구장
29	9.9.(토)	19시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30	9.16.(토)	15시	강원	평창알펜시아
31	9.20.(수)	19시	인천	광양축구전용구장
32	9.23.(토)	18시	울산	울산문수구장
33	10.1.(일)	15시	서울	광양축구전용구장





우리마을 이모저모



치매 없는 건강장수 행복마을 만든다

광양시 보건소는 11월 30일까지 50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주1회 총 20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양성한 치매예방지도자 30명을 투입하고 치매 없는 건강장수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기억력, 지력, 감성, 신체기능, 창조력, 상상력을 자극하는 레크레이션과 체조, 퍼즐, 게임, 회상그림 등 뇌자극 교육을 중심으로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치매고위험군 발굴과 치매예방간이선별검사(MMSE-DS)를 통해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추진한다.

● 광양읍 백경엽 주부명예기자



광양시 진상면 주민 단합 건강걷기대회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진상면 수어천 제방둑에 진상면 주민이 심어 가꾸어 놓은 꽃매화 길에서 '제2회 진상면 주민 단합 건강 걷기 대회'를 실시 했다.

일찍 봄을 알리는 꽃매화는 꽃봉우리를 활짝 피어 수어천 강변을 꽃물결로 물들여 겨울철 묵었던 기지개를 활짝펴 수어천 뚝을 거닐면서 나에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백운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하루를 웰빙하는 단합된 걷기대회의 하루가 되었다.

● 진상면 신유식 주부명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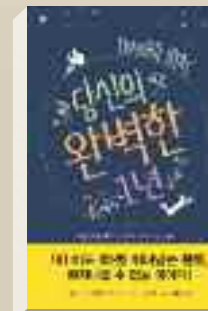
우리 마을이 예뻐지고 있어요

광양시 진상면 신항마을이 벽화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이 예뻐지고 있다. 화가들의 수고로 볼거리, 이야깃거리가 있는 마을로 변화 중이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 진상면 김호심 주부명예기자

광양시립도서관 2017년 **봄** 추천도서

성인



당신의 완벽한 1년

저자 : 샤를로테 루카스 / 출판사 : 북핍

당신의 완벽한 한 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새해 첫날, 벼락처럼 찾아 온 마법의 선물! 당신에게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한나 마르크스에게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좋은 것을 보는 것,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가끔은 우연에 삶을 맡겨 보는 것. 하지만 운명은 한나의 인생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치밀한 플롯과 탁월한 심리묘사로 유명한 비프케 로렌츠(샤를로테 루카스)의 최신간으로 사랑과 이별, 죽음과 운명,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다.

청소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자 : 이계삼 외 6 / 출판사 : 철수와 영희

일곱 가지 주제로 배우는 “나와 내 이웃의 행복과 조화로운 삶” 이야기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주체적인 삶의 자각과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성찰이 없다면 나의 의지와 판단 없이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 책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타인과 함께하는 삶, 향유하는 삶, 자연을 통해 배우는 삶, 학교를 벗어난 삶, 사랑을 통해 배우는 삶, 옛사람들의 삶 등 일곱 가지 주제를 통해 “나와 내 이웃의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린이



오, 멋진데!

저자 : 마리 도르레앙 / 출판사 : 이마주

명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늘 유행을 쫓으면서 더 가지려는 과한 소유욕,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많이 가졌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과시욕 등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본성과 세태를 글과 그림으로 날카롭고도 유머러스하게 지적한다. 재치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가는 연필과 펜선으로 디테일하게 표현된 사람들의 겉모습과 표정, 그와 대비되어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채로 표현된 물건들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 준다.

2017년

광양시립도서관 유익한 프로그램

01.

아기에게 그림책을, 북스타트(Book-Start)

- 기간 : 2017. 3. ~ 11. (9개월)
- 장소 : 광양시립도서관(중마, 중앙)
- 대상 : 광양시 출생 영유아(0~48개월)
- 주요내용
 -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 650명(선착순 배부)
 -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81회(중마 54회, 중앙 27회)
 - 전문가 초청 부모 교육 : 4회
- 문의 : 광양시립중앙·중마도서관 ☎ 797-3854, 3882

02.

북투유 특투유 도서관의 밤

- 운영기간 : 2017. 3. ~ 12.
- (매 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시)
- 대상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내용 : 매 월 주제별 토크 콘서트 운영
- 세부 추진내용
 - 3월 : 그림책이 있는 밤
 - 4월 : 시가 있는 밤
 - 5월 : 감성비가 내리는 그림책 음악 숲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2539

03.

중앙도서관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7. 3. 13 ~ 5. 13
- 운영 프로그램
 - 유 아 대상 : 그림책 요리여행
 - 어린이 대상 : 책나라 미술탐험
 - 책놀이 생각놀이
 - 책으로 키우는 창의력 주머니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3854

04.

중마도서관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7. 3. 7.(화) ~ 7. 25.(화)
- 운영 프로그램(5개강좌)
 - 유 아 : Hello, English
 - 어린이 : 꿈꾸는 위인동화
 - 창의 과학 공작소 1, 2, 3기
 - 초등인성, 나. 너. 우리 1, 2, 3기
 - 성 인 :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초급
- 문의 : 광양시립중마도서관 ☎ 797-3882

05.

어린이 다문화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7. 4. ~ 6. (매주 토, 오전)
- 장소 :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및 다문화 관심 초등생
- 내용 : 필리핀의 언어, 노래, 음식, 의상 등 다양한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배워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3863

06.

2017 인문독서 아카데미

- 운영기간 : 2017. 4. ~ 10. (매주 목요일) 10:00
- 장소 : 중마도서관 문화교실
- 대상 : 광양시민
- 내용 :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주제별 인문강연
- 횟수 : 4주제, 20회
- 문의 : 광양시립중마도서관 ☎ 797-3881

07.

중앙도서관 야간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7. 3. ~ 11. (매주 목요일) 19:00
- 장소 : 중앙도서관 교육실
- 대상 : 유아 및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 온 가족이 함께 놀며 배우는 보드게임 프로그램 운영
- 횟수 : 12게임, 36회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3861

08.

어린이 동극 공연

- 공연일시 : 연중 매월 셋째 주 토요일(8월 제외) 오후 3시
- 장소 :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 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 내용 : 동극공연, 동화구연, 독후활동, 손유희 등
- 공연단체 : 보금자리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3854

09.

이야기 보따리 공연

- 공연일시 : 연중 매월 셋째 주 토요일(8월 제외) 오후 3시
- 장소 :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 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 내용 : 동화구연, 전통문화 체험, 멀티동화 등
- 공연단체 : 무지개
- 문의 : 광양시립중앙도서관 ☎ 797-3854

2017 광양시 체육행사

• 제14회 광양만직장인축구대회

- 일시 : 3.25. ~ 3.26.
- 장소 : 마동체육공원 축구장

• 시장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 일시 : 4.1. ~ 4.3.
- 장소 : 광양읍 유림정

• 전남도민체전

- 일시 : 4.20. ~ 4.23.
- 장소 : 여수시 일원



이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도로명주소 신문고

말할 통申 들을 聞 Go 차자



참여기간

■ 2017. 2. 1. ~ 연중

참여내용

- 관공서·기업·단체 홈페이지, 명함, 영수증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훼손·오기 등

참여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신문고방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전화 797-2388, 3388 팩스 797-2576)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방문 제보

경품안내

-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지급 (당첨자 선정 매월 경품 제공)
- 지세한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797-2388, 797-338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소리 나는 앱 하나 장만하세요! 주요 생활 서비스 정보가 한곳에~



'정부3.0 서비스 일러미' 앱 다운로드 방법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Google play
'정부3.0 서비스 일러미'
앱 & 100



One Store
'정부3.0 서비스 일러미'
앱 & 100



App Store
'정부3.0 서비스 일러미'
앱 & 100



QR Code
QR 코드를 스캔 후
'정부3.0 서비스 일러미' 앱 & 100